

Vol. 8

수영, 날아오르다

도시 수영

도시 거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도시 수영



여는 글

멈춤과 관계의 단절이 조금씩 물러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단장된 도로와 거리는,
지역 문화를 담아내며 밝아졌습니다.
특히 좌수영성 특화거리 조성으로 마련된
25의용과 함께 걷는 <25의용단길>은 좌수영성과 망미골목을 잇고,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걷고, 달리고, 이제는 날아오르려 합니다.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들의 <도도수영 한 바퀴> 운영,
언양의 도시재생현장 방문과
우암동 소막마을 견학,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배움과
다양한 문화를 나누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번 소식지에 담았습니다.

수영동 곳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웃음꽃이 피어나길 기대합니다.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전 미 경**



Vol. 8
수영, 날아오르다

Contents

04 유사사례지 견학 : 언양 읍성, 우암동 소막마을

좌수영성과 닮은꼴 언양읍성을 찾아서
언양의 지역문화를 돌아보다
언양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하다
소막마을의 발자취를 따라

12 수영의 문화

무민사(武愍祠)
최영 장군 추모 행사에 다녀오다

14 Back to the 1592

수영성 에코쉼터 조성사업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 조성사업 '25의용단길'
도도수영 '느린골목길 주민관리단' 활동을 하면서

18 도도수영 도시재생 청년기획단

Do하자! Do하자! 청년들이여!
청년기획단 팀

20 2022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 선정 팀

22 도도수영 NEWS

2022년 수영구 도시재생대학
도도수영 안내소
도도수영 해설사 2기 위촉

좌수영성과 닭은꼴 언양읍성을 찾아서

전 희 정

수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2019년부터 힘 없이 달려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러한 것 같다. 특히 망미 골목부터 팔도시장 입구까지 조성된 특화경관거리가 눈에 띈다. 좌수영성 성곽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좌수영성과 닭은 점이 많은 언양 읍성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답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답사 당일 1시간 남짓 달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언양 도시재생 키움센터였다.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지어진 3층 건물이 우리를 반겼다.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라고 적힌 건물답게, 장애인들을 위한 작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우리를 놀라게 했다. 특히 2층 강당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휠체어 공간을 확보해 놨던 것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강당 옆에는 내년 설립 예정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무실과 유튜브 제작 시설을 갖춘 주민들을 위한 영상실이 이미 만들어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

연이어 방문한 곳은 **언양도시재생 나눔센터**였다. 통유리창으로 비치는 햇살이 환하게 반겨주는 1층에는 베이커리 겸 카페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2층엔 웅만한 매장 부럽지 않은 제과, 제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이곳에선 언양특화빵 개발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이 동일한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이곳의 두거점 공간과 잘 갖춰진 내부 시설들은 우리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우리엔 우리가 있다~!”라고 위로하면서 언양 읍성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도수영의 역사를 잇는 느린 골목길과 비슷한 느낌의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양읍성의 남문 영화루**를 만나게 된다. 흥예 모양인 좌수영성 남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복원된 웅성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높이와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반원형 웅성을 문루 앞에 두고 팔각지붕을 얹은 2층 누각인 영화루, 적의 공격으로부터 은신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총안을 갖춘 여장, 성벽 바깥쪽에 도랑을 파서 만든 해자는 지금도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영화루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정비되었고, 점차적으로 읍성 전체의 복원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수영의 경우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좌수영성 주변이 제법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뿐더러 도시화로 인해 좌수영성 전체 복원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도, 두 번의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수영사적공원 입구로 가 있는 좌수영성의 남문이라도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린 언양 향교에서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다. 덤으로 갔던 오영수 문학관은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다. 여러모로 오래오래 기억될 의미 있는 하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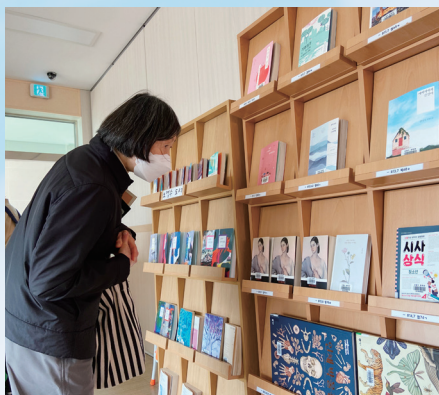
언양의 지역문화를 돌아보다

.....

김수광

도도수영 주민협의체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정체성을 강화한 지역의 방문을 통한 도도수영 해설프로그램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언양도시재생 키움센터, 언양읍성, 오영수 문학관, 언양향교를 방문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로서 언양읍성과 오영수 문학관, 언양향교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영의 좌수영성은 군사용 성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면, 언양읍성은 지방의 행정 핵심 시설로서 언양현의 주민과 관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수영에 비해 옛날 성벽의 일부가 잘 보존된 모습, 특히 남문인 영화루가 웅성과 함께 웅장하게 복원된 모습이 부럽기도 하였다. 수영 또한 하루빨리 좌수영성 남문이 본래의 자리로 옮겨가 웅성과 함께 옛날의 웅장한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사람과 자연을 사랑한 '갯마을'의 작가 오영수의 문학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장산(花藏山) 기슭에 자리 잡은 문학관은 작가의 Death Mask를 포함해 육필원고, 만들어진, 저서 등 9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사랑방, 난계홀, 야외공연장 등을 갖추고 있었다. 여러 소장품이 모두 인상적이었으나, 따뜻하게 맞아

주시는 이연옥 관장님과,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 포근하게 해설해주는 김민지 해설사님의 모습에 제일 감동을 받았다. 차분히 해설을 듣고 있으니 내 가슴이 축축이 적셔지는 듯했고, 수영을 찾아주시는 방문객들에게 해설사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일깨워 주는 큰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언양 향교에서는 입구 왼쪽에 24기의 선정비와 팔작지붕의 명륜당, 공자, 맹자, 송시열, 조헌 등 25분의 옛 성현들을 모시는 맞배지붕의 대성전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향교를 방문하여 대성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내부까지 보게 되어 의미 있었다. 다른 지역의 해설사를 만나보면서, 방문객을 맞이할 때 매사에 친절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는 도도수영 해설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할 수 있었다.



도도수영 주민협의체, 언양 도시재생현장을 방문하다

김 세 윤

봄기운이 살며시 다가온 3월의 끝자락, 주민협의체 회원들과 언양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했다. 언양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지역을 말하며, 불고기와 읍성으로 유명하다. 언양의 지명유래는 항상 양지바른 곳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신라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남부지역의 방어 기지이자 연결점으로 활용되어 왔다. 과거 사람이 모여들었던 언양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의 활력을 잃어갔고, 그 대안으로 시작된 것이 언양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언양재생현장은 역사문화를 활용하고, 사업지 인근에 시장이 있는 등 도도수영 현장과 유사점이 많았다. 사업유형도 일반근린형이며, 기간 또한 4년 차로 동일했다. 지나온 과정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 현장과 비교해서 볼 수 있었다. 먼저 방문한 곳은 **언양 도시재생키움센터**였다. 1층에는 현장지원센터, 2층에는 방송 스튜디오와 영상세미나실, 3층에는 회의실과 교육장이 있었다. 건물이 크고, 주민을 위한 공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는 건물이었다.



정성용 연양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의 사업설명이 이어졌다. 사무국장이 울주군 주무관이었으며, 공무원이 현장에서 상근으로 근무한다는 조직의 특징이 있었다. 행정과 현장, 주민 간의 소통이 중요한 재생 현장에 공무원이 늘 현장에 상주하는 부분은 효율적인 사업 진행에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주민은 주민협의체와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꾸준히 의견을 모았고, 현장에서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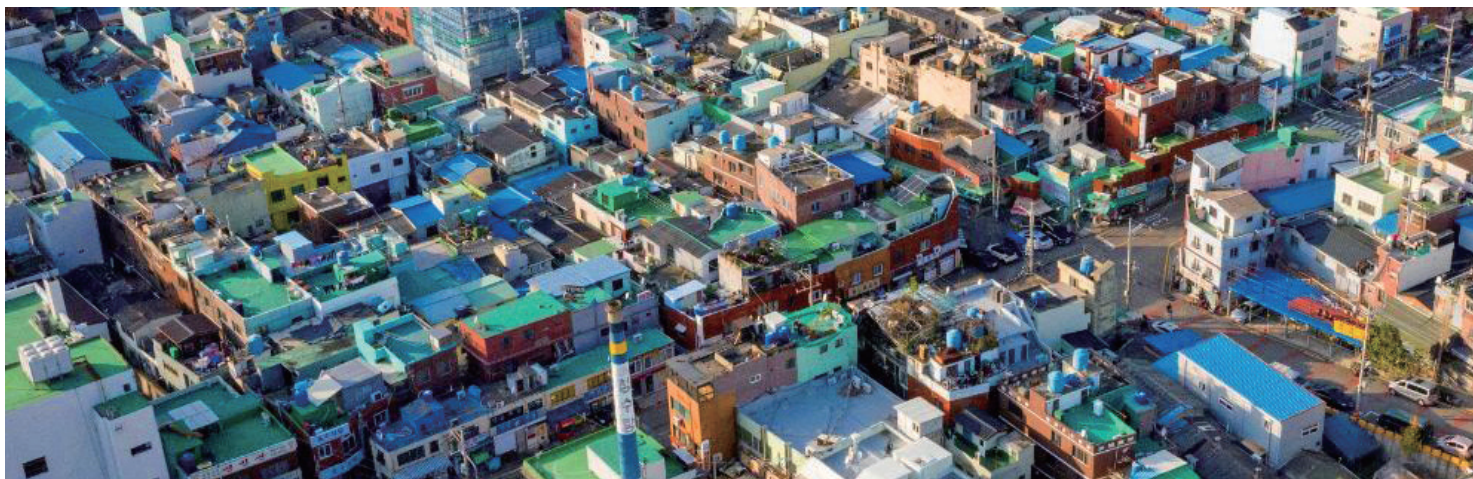
공동체 활력 증진을 위해 연양에서 진행한 콘텐츠는 **마을 방송**이었다. 마을방송국을 만들고, 미디어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 소식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한평 미술 프로젝트, 아카이빙을 통해 열린 전시관도 조성했다. 마을의 역사, 문화, 사람의 이야기를 주민 스스로 알아보고, 알리는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다양한 주민공모 사업에서는 재생 사업을 통해 마을을 예쁘게 꾸며 나가려는 주민들의 애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키움센터를 나와 이동한 곳은 **연양도시재생 나눔센터**였다. 키움센터가 도도수영 8A의 역할을 한다면, 나눔센터는 어울주방과 어울다방의 역할을 했

다. 원래 카페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카페와 로스팅실, 2층은 제빵시설로 구성되었다. 주민들이 빵과 다과를 만들고 시범 판매까지 진행되었으며, 정식오픈을 앞두고 있었다. 도도수영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도 판매제품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견학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제품을 경험해보고 도도수영의 문화,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한다면 우리만의 아이টে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에 걸맞은 공간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연양읍성**이었다. 도도수영은 경상좌수영성지로 성곽의 일부가 남아있는데 반해 연양읍성은 실제 규모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으로 봐왔던 웅성, 해자 등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실제로 해설에 도움이 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거점의 규모와 성과가 부럽기도 하지만 도도수영은 우리의 방식대로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다. 견학을 통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또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조금씩 도도수영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밝아지고 있다. 앞서 나가는 유사사례지 도도수영의 모습이 기대된다.



소막마을의 밤자취를 따라

신광임

우암동 소막마을로 견학을 가게 되었다. 시대의 변천으로 이어지는 궁금증을 한 아름 안고 소막마을 주민공동체로 향했다. 소막마을의 입구에 있는 **황소**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 황소는 2021년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었는데, 수영구에서 남구 소막마을에 기증한 소이다. 황소 주위에는 소의 형상을 한 벤치와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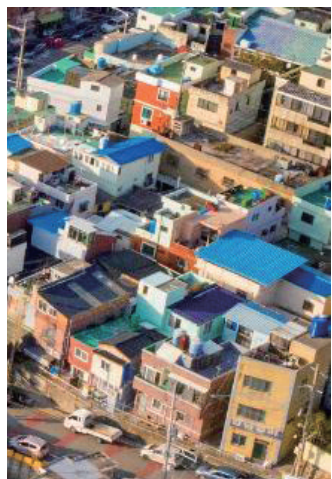
안내판에는 ‘**소 검역소 마을에서 피난민 마을이 된 100년 골목 소막마을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우암동 189번지 일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출우검역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소막사를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인 마을이 형성되었고, 가축검역을 담당하는 ‘수출우검역소’는 1909년 ‘이출우검역소’로 바뀌었다고 한다.

소막마을의 지명은 우암이었는데, 옛날 이곳 포구 내에 큰 바위가 소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우암포라 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암동에 ‘적기만 매축 사업’으로 앞바다가 매립됐고 조선소 수탁을 위한 수출우검역소와 소막사가 세워졌는데 수출우검역소에는 소막사인 19동의 축사가 있었다고 한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몰려와 소막사는 적기수용소라 불리는 임시구호 시설로 활용됐으며, 피난민들은 막사 내부에 통로를 만들고 가마니, 이불 등으로 공간을 구분해 함께 살았다고 한다. 그 이후 1960년대 하꼬방(판잣집)이라 불리는 집들이 다닥다닥 만들어졌고 이후 불법으로 증개축하면서 아래층보다 윗층이 더 넓은 큰 가분수 집이 등장했다고 한다. 가옥 한 칸이 약 4평 정도의 집들로 다닥다닥 일렬로 조성돼 **나라비집**, 또는 **하모니카 집**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소막마을 주민공동체 소막마을 편집장을 겸임한 공경식 해설사님의 소막마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막마을 골목과 시장을 돌아 동향성당까지 투어했다.

소막사의 천장이 높아 다락방으로 만들어 많은 식구들이 함께 살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한 동을 더 구입하여 넓게 지은 집들도 있었다. 소막마을은 현재에도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좁은 골목길을 가다 보면 **100년 우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물이 많이 나와 빨래터로 사용하고 있어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소막마을 테마 벽화 골목을 돌아 나오면 우암골목시장 내에 100년을 이어온 **내호냉면**이라는 가게가 있다. 이 가게는 북한식 냉면 전문점으로 함경남도 흥남시 내호리가 고향인 이영순(1919년) 씨가 흥남부두 앞에서 장사를 하다가 1951년 1.4 후퇴 때 부산으로 와서 시작한 냉면 가게이다. 4대째 이어오는 이 가게는 그 당시 메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당시 구호물품이었던 밀가루에 감자가루를 섞어 냉면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냉면이 현재의 밀면이다. 그 내호냉면 가게가 있어 쇠퇴해가는 골목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은 **동향성당**에서 소막마을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나누어 주어 주민들이 구제되었고, 우암동 판자촌 성자로 불리는 하안토니오 몬시뇰 신부가 빈민사업과 사회 복지사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성당에서 좀 더 올라가면 우암동 도시 숲이라는 공원이 있고, 그곳에 커다란 정자가 있어 부산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모자라 아쉽게도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동향성당에서 해산을 했다.

우암동 골목시장 위로는 동네의 절반이 재개발로 붉은 땅만 보였고, 우암동에 거주하던 주민 800명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현재 우암동 소막마을에는 노인과 사회적 배려 계층이 많다고 한다.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간직하고 있는 우암동 소막마을을 좀 더 환경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근대 역사공간, 소막커뮤니티센터가 빨리 완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내호냉면 3대 사장님과 함께



▼ 100년 우물

무민사

武愍祠

최광훈

무민(武愍)은 최영 장군 (1316년~1388년)의 시호 (諡號: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찬양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호)이다. 무민사는 최영 장군을 모신 사당으로 수영의 향토사학자이신 고 최한복 선생께서 1962년에 지으신 수영 팔경에도 언급된 걸로 봐서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최영 장군은 고려 말의 장수로서 여러 차례의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막아내고, 원나라 원병과 내란 평정 등赫赫한 공을 세워 고려를 수호한 인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으나 조선 태조 이성계 일파에 의하여 억울하게 참수당한 이후,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가장 많이 모시는

무속신이 되어 그분을 기리고 기대려는 민중들의 소망은 끊이지 않아 최영 장군 사당은 전국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왜구들은 최영 장군을 백수 최만호(白首 崔萬戶)라 부르며 몹시 두려워한 반면에 평소 왜구로부터 노략질을 당하는 바닷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고마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부산도 바닷가라 그런지 최영 장군 사당이 이곳 수영과 감만동에 무민사가 있고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비각(비석을 모신 사당)과 영도 봉래산 산제당이 있어 매년 장군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3절 초입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라는 가사가 있으며, 고무줄 뛰기 놀이 세대 분 들은 최영 장군 노래를 부르며 고무줄뛰기 놀이를 하던 추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수영 무민사의 최영 장군 추모 행사에 다녀오다

김 연 희

수영동의 최영 장군 사당은 좌수영 성지 동문 밖 큰 바위 앞에 있다. (현재 수호 노인정 앞이다) 옛 날에는 최영 장군제-용왕제-거릿 대제의 순서였으나 지금은 최영 장군제만 지내고 있다. 거릿 대제를 지내던 곳은 원래 옛날 최영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고 지나가면서 쉬었던 장소인 백산의 팽나무 밑이었다. 하지만 현재 팽나무가 있던 장소는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섰고, 널구지로 가는 산길 길목의 우측으로 나무를 옮겨 놓은 상태다. 무민사가 있는 이곳은 수영에서 아주 유서 깊은 곳이다.

25 의용은 과거 임진왜란 7년 동안 유격전을 펼칠 당시, 이곳에서 나라에 보답하고자 죽음으로 맹세하였다. 이후 이 큰 바위는 선서 바위라 불렸고, 왜군에게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팽나무는 가림 나무라 불렸다. 이곳은 최영 장군의 공덕을 기념하는 곳으로써 25 의용의 호국 정신이 함께하는 우리 수영동민의 영혼이 깃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말 왜구를 크게 무찌른 최영(崔瑩) 장군(1316~1388)의 영신(靈神)을 모신 사당인 무민사. 원래 이곳은 강신 무녀가 최영 장군 영정을 모시고 살던 오두막집이었는데, 무녀가 죽은 뒤 마을에 우환이 자주 생기자 1963년 주민들이 오두막을 헐고 사당을 세웠다. 이는 1973년 개축했으나 노후되어 2005년 5월 재건립하였다고 한다.

매년 음력 정월 보름 새벽에 마을 주민들이 제를 지내왔고, 2006년부터는 연 1회 삼진날(음력 3월 3일) 저녁에 제를 지내고 있다. 제관과 집사는 수영 향우회에서 맡아 진행한다. 제물 종류와 절차는 일반 수영지방의 제사와 동일하게 지낸다. 올해도 음력 3월 3일(2022년 4월 3일)이 되자

저녁 7시에 제사를 올렸다. 제단에는 “최영장군신위(崔瑩將軍神位)”라는 위패와 최영 장군의 영정,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번 제에는 수영동의 주민들과 수영향우회, 구청장님, 구의장, 그리고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들이 참석했다. 시간이 되자 제관이 사당 네 귀퉁이마다 소금과 흙을 한 줍씩 놓았다. 그리고 입구와 제단의 금줄을 제거한 뒤, 추모제가 시작되었다.

“만물이 소생하고 강남 갔던 제비 돌아오고 봄이 온 것을 알리는 날 삼월 삼진날.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으니 최영 장군님은 겨레의 초석이십니다.”로 시작하는 기도문이 읊어졌다. 3번의 어험 어험 어험 (헛기침) 소리와 함께 수영의 안녕도 기원했다. 추모제는 강신(향을 피우고 조상을 모시는 의식) - 참신(조상님께 문안 인사) - 헌주(조상님께 술을 올린다) - 유식(조상님께 식사를 권하는 의식) - 합문 또는 시립(조상님이 식사하시는 시간) - 헌다(송농을 올림) - 사신(조상님들과 작별 인사) - 납주(축문 소각하는 의식) - 철상, 음복(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음)의 절차로 이루어졌다. 간소하지만 절차와 예를 갖추어 진행되었다. 제를 마치고 주민들과 막걸리와 밤 한 톨, 대추 한 톨이라도 입 안에 넣어주며 정을 나누는 모습, 떡 하나라도 봉지 봉지 싸서 나누는 모습, 오랜만에 만나는 정겨운 모습이다. 무속신앙이라는 의미보다, 최영 장군의 정신을 존경하고 정을 나누는 전통문화로서 오래도록 지역에 자리하길 바라본다.



수영성 에코쉼터 조성사업



지난 2022년 3월, 「수영성 에코쉼터 조성사업」이 완공되었다. 옛 좌수영성 문화재보호구역인 수영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서 **역사적 분위기의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좌수영성터 보존과 성벽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개선을 진행하였으며, 아름다운 조경과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쉼터이자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머물고 싶은 장소로 탈바꿈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수영구 공공전기자전거」 대여 장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영구청 스마트도시과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로 뉴딜사업지 내 주요 관광지와 거점시설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공공전기자전거 대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한다. 2개소로 조성된 에코쉼터 위치와 조성 전후 모습은 아래와 같다.

수영성 (마을박물관) 에코쉼터 : 수영동 206-2번지



수영성 (남문) 에코쉼터 : 수영동 314-1번지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 조성사업 25의용단길



수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수영성 옛 성벽의 재현과 오래된 도로 개선, 임진왜란 당시 수영성을 지켜낸 25의용(義勇)의 토우를 설치하는 등 「좌수영성 특화경관거리 조성사업」이 2022년 5월 말 완공되었다. 해당 사업은 망미골목에서 수영성길을 따라 7개소에 25의용의 모습을 한 토우를 설치해 지역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탐방길(일명 '25의용단길')을 조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수영구는 임진왜란 당시 삶의 터전인 수영성이 위기에 처하자 성문 밖 선서 바위에 모여 피로써 맹세한 후 7년간 왜적과 맞서 싸운 25의용의 행적을 기리며, 현재 수영사적공원에 조성된 25의용단(부산시 기념물 1972년 지정)에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9월에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좌수영성과 25의용의 이야기는 「도도수영 한 바퀴」 수영구 도시재생 투어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투어신청 ▶ QR CODE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051. 610. 4093



도도수영

‘느린골목길 주민관리단’ 활동을 하면서

장은서

이번에는 ‘느린골목길 주민관리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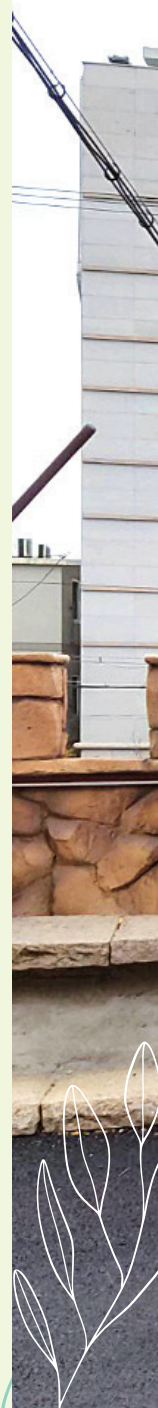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도도수영』이 예쁘게 단장되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오랜 주택이 사라진 자리를 나무와 꽃들로 가꾸어 ‘에코쉼터’가 되고, 늘 다니던 도로는 스탬프 공법을 통해 홍예 문을 닮은 모양으로 바뀌었다. 거기다 주민들을 맞이할 SOC들이 하나 둘 세워지며 우리의 골목길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비되고 있다.

어느 골목은 벽화로, 어느 길은 다채로운 가게로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여럿 중 가장 자랑스럽고 자랑하고 싶은 길은 단연 25의용단길이다. “많이 쉬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게” 하면서 25의용이 토우의 몸으로 당당하고 늠름하게 수영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길들을 어떻게 사용해야할까?

‘느린골목길 주민관리단’ 활동을 하면서 둘러보게 된 이 길들은 언제까지 유지될까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발길이 많이 닿은 곳은 벌써 색이 어두워지고, 흙이 파인 곳은 담배꽂초가 군데군데 박혀있다. 에코쉼터는 페트병과 1회용 컵들이 한 개씩 놓여 있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져가면 좋을 텐데’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멋진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느린골목길 주민관리단’이 나섰다. 골목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잘 가꾸어진 공원의 꽃과 나무에게 물도 주고, 수영성돌 사이로 자라난 풀들도 서툰 장비질로 다듬어 준다. 25의용단길을 걸으면서 눈도 마주치고 마음 속으로 ‘와~’하며 관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성도 질러 본다.

‘느린골목길 주민관리단’은 마을 통장님과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2주에 한번 활동을 통해 개선할 것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야기 나누며 동네를 살펴본다. 평소 동네 구석구석을 보지 못한 분은 달라져가는 모습에 반기며 기뻐했다. 이렇게 잘 꾸며진 동네를 어떻게 오래도록 유지할까하는 고민도 깊어지는 표정이다. 그러나 ‘느린골목길 주민관리단’을 하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들과 조끼 입고 환경에 애써 주시는 분들을 만나며 인사하는 우리가 마을을 위해 조금만 더 마음을 쓴다면 그만큼 오래도록 가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가진다.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서로가 조금의 관심과 수고로움을 기울인다면 『도도수영』으로 잘 가꾸어진 이곳이 우리의 자랑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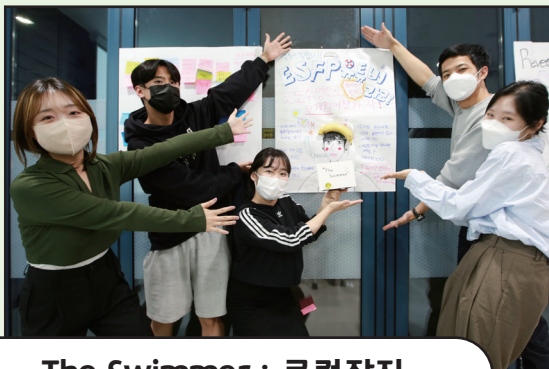
도도수영 도시재생 청년기획단

DO하자! DO하자! 청년들이여!

.....

‘도도수영 도시재생 청년기획단’이란 수영구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 실행하고 싶은 로컬콘텐츠 또는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을 모집하고, 관심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로컬 비즈니스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콘텐츠를 사업화하는 실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The Swimmer : 로컬잡지

도도수영의 옛것과 새로운 것을 스토리로 묶어 비부산권 사람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수영에만 있는 포인트를 다루어, 수영을 체험하고 싶게 만드는 ‘개성과 애정, 스토리가 담긴 잡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도도한가지 : 로컬커뮤니티

‘재생, 순환’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 일회용품과 비닐 사용을 지양하는 자원순환 바자회 및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순환시킴으로써 가치 있는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도도수영 DO하자! DO하자!

도시재생 청년기획단

청년들이여!

지원내용 이런 분은 꼭 지원하세요!

- 도도수영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상행하고 싶은 로컬 콘텐츠 혹은 아이디어, 로컬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
- 로컬 커뮤니티 운영 / 로컬 제품 / 로컬 집지 / 로컬 푸드 중 내 관심 분야가 있는 청년
-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연결하여 뭔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청년

지원조건 부산광역시 거주 청년 및 예비창업자

수영구에 주소재상업점 1개 이상, 직장을 두고 있는 청년 우대

도도수영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상행하고 싶은 로컬 콘텐츠 또는 로컬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 및 예비창업자

* 청년: 만 19세~만 39세(제외기간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82년생까지)

모집인원 총 20명

선발방법: 참여신청 후 인터뷰(대면)

모집내용

모집기간: 2022년 4월 30일(일)까지

신청방법: ① QR코드 링크 접속
② 홈페이지: <https://bit.ly/3Ka40Z8>
③ 전화번호: 수영구도시재생지원센터 051.610.4095 / 010.2967.7582

인터뷰(대면): 2022년 4월 초(일정 및 시간 별도 안내 예정)

활동혜택

활동기간: 1월(4.16. ~ 5.19.) ▶ 2월(5.20. ~ 7.30.) ▶ 3월(7.31. ~ 8.31.)

상세활동: 참여신청주소를 클릭하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내용: 1월(4월) ▶ 기초교육 ▶ 아이디어 상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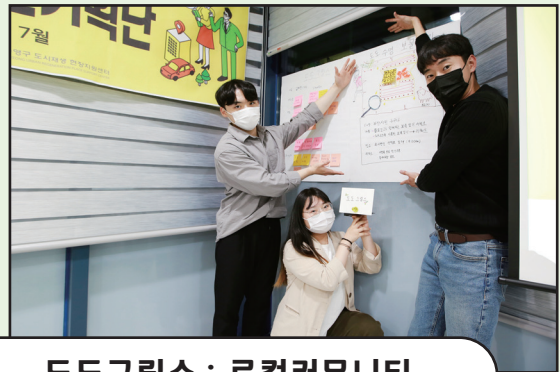
혜택내용: **혜택 1** 1월 상행 250만원 지원, **혜택 2** 2월의 전달 매니저 배치, **혜택 3** 70% 이상 충족시 수수료

주최: 수영구 도시재생 청년기획단



도라잇(DoDo Like It) : 로컬푸드

‘비건’을 키워드로 하여 비건 피자, 비건 라자나 등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형태의 콘텐츠를 기획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도수영의 특징을 담은 전통주, 페플라스틱 병과 일회용 컵 등을 재활용한 화분에 심는 허브 등 특색 있는 아이템들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도그릴스 : 로컬커뮤니티

사람들의 발걸음을 수영으로 유도하는 보물찾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도수영 사업지 내에 보물들을 숨겨놓고, 보물을 찾아오면 상품을 드릴 계획입니다. 보물찾기 이외에도 주민들이 가볍게 산책하며 플로깅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022년 도도수영 주민공모사업



숲 우리들: 향기로운 우리 녹색 어울길



올해 만들어질 도도수영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어울주방, 어울민박'의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 동네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식물이 심어진 화분길이 조성되면,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기분도 아주 산뜻해질 것입니다.

수담수담: 타임머신을 타고 온 도도수영 골목

도도수영 뉴딜사업지 내의 가구에 문패를 달아주어 골목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문패가 아니라, 각 집의 특색이 나타나는 문패를 제작하여 주민들의 개성이 드러난 특별한 골목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나만의 가족 만들자: 나만의 가방 만들자

작업 후 버려지는 가족에 특수한 필름지를 입히면 리사이클 양면 가족이 탄생합니다. 이 양면 가족을 재료로 하여 주민들과 함께 가방, 장지갑, 파우치, 그립톡 등의 가족공예품을 제작해 보려 합니다.

도도르네상스: 도도 거점 포토존

도도수영을 찾는 방문객에게 경상좌수영 캐릭터 모형을 제작하여 포토존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우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동네에 이색적인 볼거리가 생기고 스토리가 부여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반(U'Barn): 문화재생으로 완성되는 도도수영

수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아노를 기부받고, 이를 도도수영 거점공간에 설치하여 열린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공간에서는 도도수영 해설사와 전문가가 협업하는 주민 주도 투어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리워크: 망미액티브 시니어 홈 스마트팜 만들기



지역 시니어들이 직접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행복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홈 스마트팜 생산 활동으로 수확된 작물의 판매까지 시도해 본다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영성무예마을: 수영성에 수군이 돌아왔다

작년에 이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군 무예 전승교육을 실시합니다. 활쏘기, 태권, 검술 교육을 통해 수영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상좌수영 조선 수군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계승할 것입니다.



심표 : 수영구의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심(心)표 프로젝트"

마스크 착용, 만남 감소 등 정서적 불안감을 가져오는 사회현상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건강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공유하는 마음 치료 프로그램과 마음 건강 챙기기 도구를 활용한 전시를 열어 청년의 마음을 사회에 공유하고 알릴 계획입니다.

재미있는 공예 이야기: 우물터에서 놀자

수영사적공원의 입구로 쓰이고 있는 경상좌도 수군절 도사영 남문 입구를 로고로 제작해 가족공예품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도도수영을 방문하고, 가족공예 체험을 통해 도도수영의 이야기를 굿즈로 만들 것입니다.

클린부산: 음악이 넘실넘실 광안리 플로깅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쓰레기를 줍는 팀 클린부산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음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는 동시에, 즐겁게 플로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풍장국악마을: 도도희희호호

코로나 극복 기원과 도도수영 사업지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위한 거리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물놀이, 호랭이 춤, 모듬북 등의 공연뿐만 아니라, 호랑이 탈을 착용한 뒤 간단한 춤 동작을 따라 해보는 등의 체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지매's : 푸조가 들려주는 100살 어린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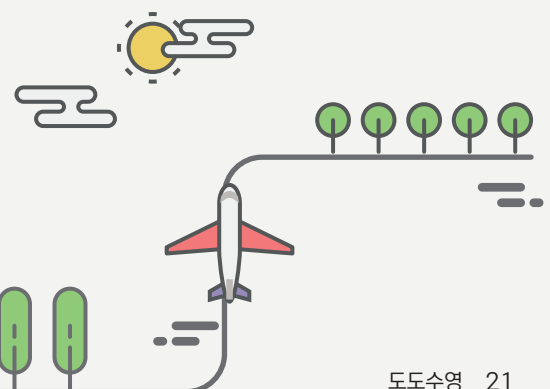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고 실버 도서관에 비치하여 도도수영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도수영이 가진 여러 자원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은 마을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퇴근길 예술 한 잔: 일상에서 만난 '어쩌다 예술가'

일과 삶의 밸런스, 즉 워라밸에 주목하여 수영의 주민들과 함께 삶의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예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주민들의 예술교류 활동 또한 지원할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수영구를 3D 캔버스에 담아내다!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의 관광 문화 보존을 위해 수영 주민들이 직접 DIY 상품의 시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수영을 대표하는 명소와 캐릭터 등을 3D 캔버스에 디자인하여 지역의 특색이 담긴 콘텐츠를 만들 것입니다.



도도수영 NEWS

도도수영 안내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비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2주간 도도수영 안내소가 운영된다. 평일, 주말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사전 예약 가능하며, 플레이그라운드 홍보관 1층에 도도수영 안내소가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2인 이상 참여 가능)

- [일 정]** ▶ 2022년 6월 3일 ~ 6월 17일
- [세부 코스]** ▶ A코스 : 비콘에서 망미를 열다
▶ B코스 : 도도에서 문화공장까지
▶ C코스 : BACK TO THE 1592
- [운영 시간]** ▶ 평일(월~금) 1회 (12:00 ~ 13:30)
2회 (16:00 ~ 17:30)
▶ 주말(토~일) 1회 (11:00 ~ 12:30)
2회 (13:00 ~ 14:30)
3회 (15:00 ~ 16:30)

비콘으로 와요 with “도도수영” 안내소

2022년 6월 3일 ~ 6월 17일 B-CON 플레이그라운드 1층

도도수영 기획자들이 안내하는 도시재생 투어

★ 투어 코스 안내 ★ ※ 2인 이상 투어 가능

A코스 “비콘에서 망미를 열다” (소요시간 : 90분)
도도수영안내소 → 망미골목 → 비콘그라운드

B코스 “도도에서 문화공장까지” (소요시간 : 90분)
도도수영8A → 비콘그라운드 → F1963

C코스 “BACK TO THE 1592” (소요시간 : 90분)
도도수영 안내소 → 비콘그라운드 → 건설시장 → 망미골목 → 도도수영8A → 25의용단길 → 수영성남문터 → 도도수영어울림센터

도도수영 도시재생 투어 운영시간

도도수영 안내소 운영시간

평일 오후 12시 / 오후 4시

주말 오전 11시 / 오후 1시 / 오후 3시

오전 11시 ~ 오후 5시 30분

예약방법

① 현장접수 또는

②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예약

[문의] 수영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51) 610-4095



2022 수영구 도시재생대학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던 2022 수영구 도시재생대학이 홈가드닝 및 아카이빙 실습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총 42명의 수강생들 중 39명이 수료하였으며, 5월 31일 (화) 오전 10시에 수영구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대학 성과공유회를 통해 수료증을 전달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각 과정(정원사/사진작가)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결과물과 실습 과정을 직접 소개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소감과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도도수영 해설사 두번째 이야기



수영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좌수영성 스마트 둘레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도도수영 도시재생 해설사 양성을 진행했다. 2020년부터 진행된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지난 2021년 1기 해설사가 배출되었고, 작년부터 새롭게 진행된 해설사 2기 양성과정을 통해 5월 17일 (화) 제2기 도도수영 해설사가 위촉되었다.

이들은 도도수영 해설사 일반 교육 과정, 심화 교육 과정,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현장감 있는 실습 과정을 통해 역량을 키워왔다. 교육 이수 완료자 10명 중 7명이 2기 해설사로 위촉되었고, 앞으로 비콘 그라운드와 도도수영 뉴딜 사업지 일대에서 진행될 '도도수영 안내소'와 '도도수영 해설사 1·2기 통합 보수교육과정' 등을 통해 수영동 주민들과 함께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4일에는 도도수영 해설사 1기와 2기가 만나는 간담회를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발행처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편집인	전미경, 김연희, 최광훈, 장은서, 조은혜, 김세윤
디자인	이상컴퍼니
발행일	2022년 6월 15일
인쇄	청송인쇄사
주소	부산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70번길 137
전화	051. 610. 4093~5



현장지원센터
블로그



현장지원센터
인스타그램



현장지원센터
페이스북



본 소식지는 수영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영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